

문화

“가정보다映畵가 중요”

「결혼이야기」처럼 사는 「뉴키즈 커플」

문화인夫婦

「申씨네」사장申哲 기획실장吳延琬



영화계의 「뉴키즈 커플」로 통하는 申哲 吳延琬 커플. (金東柱)

『뽕살장』에 등장한 국내 영화계에 영화기획자라는 용어를 정착시킨 영화사 「申씨네」(Shin Cine) 대표 申哲씨(36)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영화프로듀서로 활약하고 있는 부인 吳延琬씨(39)는 평소 서로를 이렇게 부른다. 이는 뽕씨가 남편화사의 기획실장으로 일하면서

할 경우에는 전화로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면 그만이다. 85년 겨울 모대학 영화제에 「양철북」이란 영화를 보러갔다가 마주친 두 사람은 88년 4월 결혼식을 올린 뒤 올해도 결혼식을 6년째 이지만 아직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 일반적(이론) 여자쪽에서

년 9월 영화사 申씨네를 창업했다.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광고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아내도 사업에 참여했다. 영화사 연출부와 극장 기획실등의 굵은 일을 맡기로 때로는 申씨의 「현장감각」과 뽕씨의 「신세대 감각」은 곧 「행복」은 성직순

50만명(기록을 세웠다. 이어 92년 7월 영화사 창업이후 처음 제작한 「미스터 맘마」가 서울에서만 27만여 관객을 동원, 성공을 거뒀다. 올해에는 「백한번재 프로포즈」등 네편을 잇따라 제작, 극장가를 석권한다는 계획이다. 申씨는 부인에 대해 「뽕실장의 영화에 대한 판단

것이 흥미라면 흥미라고 걱정한다. 申씨네 직원들은 두사람을 「가정」을 꾸미기 위해 결혼한 부부가 아니라 「영화」를 위해 맺어진 부부」라고 입을 모은다. 「때로 사장님이 회사일로 눈물이 쏙 나오도록 실장님을 꾸짖는 것을 볼 때면 안포롭기까지 하다」고 애기한다.

두사람의 공통점 「소망」은 언젠가 「시네마천국」같은 것이 흥이라면 흥이라고 생각한다. 申씨네 직원들은 두사람을 「가정」을 꾸미기 위해 결혼한 부부가 아니라 「영화」를 위해 맺어진 부부」라고 입을 모은다. 「때로 사장님이 회사일로 눈물이 쏙 나오도록 실장님을 꾸짖는 것을 볼 때면 안포롭기까지 하다」고 애기한다.

(吳明哲)

남편 “主婦 역할보다 회사일 더 열심히” 주문
食事 서로 밖에서 : 집은 단지 잠자는 곳으로

「사장님」과 「실장」이라는 호칭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에게 집은 「잠자는 곳」이 아닌 별다른 의미가 없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7, 8시간에 불과하고 식사도 밖에서 혼자 해결하고 있다. 출퇴근도 각자 알아서 한다. 일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못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아이를 갖지 않기로 고집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부부는 정반대다. 남편 申씨가 「주부 역할」은 못해도 좋은 일을 더 열심히 하라며 굳이 말렸기 때문이다. 영화에 미쳐 수업을 빼먹는 13년 만의 서울대미학과를 졸업한 申씨는 88

이 아니잖아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베를린 리포트」등의 화제작을 탄생시켜 주목을 받았다. 자신을 연인 이틀은 영화사에 기획 아이디어를 남몰래 던져서 탈피, 92년 초 「결혼이야기」를 기획 제작해 그해 한국영화 최

력이 나보다 더 나을 때가 많다. 또 대외적인 업무 처리에서도 내가 부족한 점을 많이 보완해 준다」고 말한다. 반면 뽕씨는 「사장님은 영화를 보는 시각이 거시적이면서도 치밀하다. 추진력도 있고... 그런데 일을 너무 많이 벌이고 다녀 제대로 추스르기가 어려운